

교양과목 상대평가 폐지되나...후마 공청회 열어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의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육과정개편 공청회가 지난달 12일 열렸다. 4년마다 진행되는 후마 교양과목 교육과정개편을 앞두고 학생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주요 안건은 평가 방식과 이수 체계 검토였다.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서울캠 후마 정복철 학장, 김진해 부학장, 교과 프로그램 담당(PD) 교수진, 학생대표단, 일반 학생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성현(정보디스플레이학 2021) 후마 위원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1부에서는 후마 교양과목 평가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

다. 김 부학장은 지난 2019년, 재학생 569명과 교원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안적 성적평가 TF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부학장은 “학생과 교원이 모두 교양과목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와 P/F 평가 방식을 선호했다”며 “교양과목 평가를 단순 수치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배움에 주목해달라는 학생의 뜻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2023학년도 1학기 교양 만족도 조사’에서도 배분이수교과 평가 방식 선호도는 [절대평가] > [상대평가] > [P/F] 순이었으며 그 외 교양과목 평가 방식 선호도는 [절대평가] > [P/F] > [상대평가] 순이었다. 해당 조사엔 재학생 1,089명이 참



교육과정개편 공청회 (사진=김륜희 기자)

여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혜윤(행정학 2019) 사무국장은 “전공으로 인한 학업 부담에 따라 교양 부담을 줄이고자 한 학생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과 평가 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권 주요 6개 대학 교양과목의 A+~B+ 학점 분포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학교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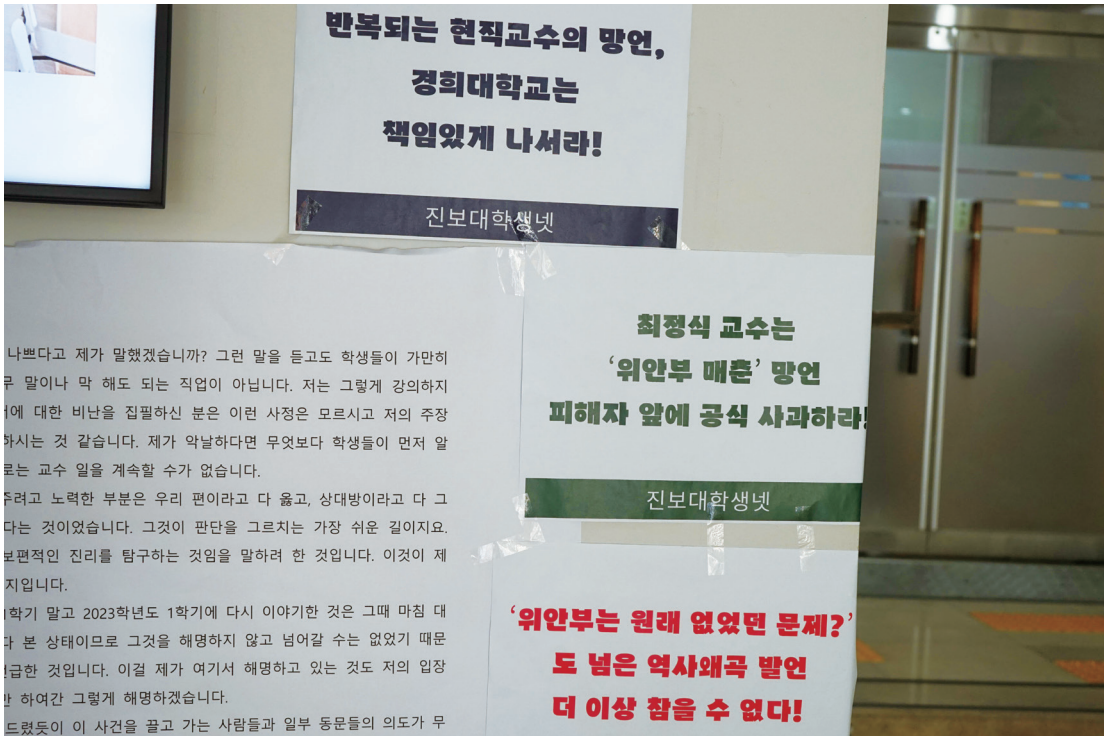
업 경쟁력과 교양 상대평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양과목의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학장은 충분한 논의가 있는 만큼 절대평가 혹은 P/F평가 시행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캠 후마 조소연 행정실장은 “교육과정개편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국제캠 후마 김경희 행정실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배분이수 교과 선택 자율성에 대해서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필수 수강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재직자 전형으로 입

학한 김명현(문화관광산업학 2021) 씨는 “재직자 전형으로 들어와 배분이수 영역 구분이 없어 선택의 폭이 더 넓었다”며 “교양 과목에 좋은 강의가 있어도 그 영역 과목을 이미 이수해 좋은 과목을 추가로 듣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직자 전형 입학생의 경우 배분이수 영역과 관계없이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김 부학장은 “5개로 영역을 축소하고 그중 3개 영역을 필수 수강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과목, 대학 영어, 교양과목 관련 전공 학부생의 필수교양 이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후마 교양과목 최종 개편안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최 교수 해명 대자보 게재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서울】최정식(철학) 교수가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논란과 관련, 동문들의 성명서 및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응하는 해명 대자보를 문과대학 1층 게시판에 게재했다. 최 교수는 지난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고 재차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최 교수는 해명 대자보에서 우리의 진위 판별이 가장 잘못되고 있는 곳은 역사라며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가장 큰 책임은 신하인 이완용이 아닌 고종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독립 운동사가 왜곡됐고 위안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원래 없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와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의 연구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들었다. 이어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사람들과 일부 동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밝혀진 지금, 저는 당당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 신문과의 만남에서 “일본인 공산주의자 요시다 세이지가 본인이 일본인 순사와 함께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빨래하던 여자들을 납치했다는 글을 아사히 신문에 발표했다”며 “이후 한 여성이 처음에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기 위해 만주 쪽으로 데려갔다



최정식 교수는 해명 대자보에서 우리의 진위 판별이 가장 잘못되고 있는 곳은 역사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상희 기자)

고 주장했지만, 중간에 한병에 체포돼서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얘기들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에 다 생생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 논란과 관련, ‘자발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이라는 건 매춘이 좋아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사회 상황을 고려해 이해해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못사는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매춘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기 때

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시간 도중 위안부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자보에서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를 진행하며 서양 철학의 근본정신이자 출발점을 설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강의 자체가 서양 철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권위 있게 어떤 게 옳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다”며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학생이 판단해야 되고, 그럴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강의”

라고 말했다. 다만 “믿을 때는 항상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지속된 언론 보도로 논란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그 시민단체는 의식이 있어서 고발한 게 아니고 주로 매스컴에 자기 이름 나오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오라 하면 조사를 받으며, 있는 그대

로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로 지난 2019년 강의 도중 일본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류 교수는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우리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최정식 교수의 망언 사태와 2023년 9월 26일 교내에 게시된 최 교수의 동문회 ‘정치적 주장’은 윤 대자보에 대한 학교 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시오>라는 대자보를 문과대학 게시판에 게재해 학교 측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총장실은 현재 감사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1일, 철학과 졸업생 90인은 <또다시 역사 왜곡 발언으로 철학과의 명예를 훼손한 최정식 교수에게 졸업생의 이름으로 망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으며 철학과 동문회는 <경희대학교 철학과동문회에서 모든 경희가족에게 알립니다>는 성명서에서 학교 측에 징계 조치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 바 있다. 경희총민주동문회도 <철학과 최정식 교수는 역사의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경희학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는 입장문을 내는 등 각종 단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